

# 낙농인의 살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낙협설립



황 민 영  
농수축산유통정보 편집국장

우리 낙농산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가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낙농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크게 우려했던 것은 낙농산업을 에워싸고 있는 주객관적 조건은 특히 낙농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낙농인을 포함한 낙농업계의 자세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쇠고기의 무제한 수입방출이 육우농가만의 일일 수 없고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홍수가 어디 양돈인들만의 고민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축산업을 위시하여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크고 적게 바로 이웃의 양축농가, 낙농인에게 불리하

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반 경종, 시설, 원예, 과수농가의 위기적 상황도 남의 일이 아니라 공동운명체적인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

더우기 이러한 전농민적 공동운명의 연대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요즈음의 농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부당국은 물론 정계 학계에도 팽배하여 있고 심지어는 농민 자신들도 농축산업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도 연유하겠지만 시혜적, 패배주의적 의식이 부지부식간에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즉 농축산업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도시와 농촌, 상공업과 농축산업, 도시민과 농민들간에 일정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 자신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최선의 수단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성격이 독점단계에 이르게 되면 영세한 소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협동을 통하여 생산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정치적인 권익실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협동조합도 종합적 협동조합이 아닌 전문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된다. 낙농 협동조합, 양돈협동조합, 양계협동조합 등 종목, 품목별로 세분화,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치즈협동조합, 베이컨협동조합과 같이 생산단계마다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의 협동조합도 발전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최근 지역별로 설립되어 가고 있는 낙농협동조합은 경제, 사회 발전단계에서의 당연한 추세이다. 그동안 우유를 잘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여도 마땅한 판매처가 없고 집유를 받아준다고 하여도 유지방검사에서의 불신감은 어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집유를 받아 준다고 하여도 지금까지의 유업체의 「횡포」는 낙농업자의 커다란 아픔이었다.

이제 낙농인의 역할이 단순한 젖소를 관리하고 우유를 짜서 집유소에 납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시기는 지났고 또 그런 수준으로 낙농산업은 있을지언정 낙농인은 존립할 수 없게 될것은 명확하다.

더군다나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적 낙농인은 생산과 가공, 판매 그리고 낙농업에 관련된 제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 직간접으로 참여, 주도하여 낙농산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낙농인들 개개인으로는 집유, 유가공, 판매 등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료공장, 자가배합사료, 동물약품의 구판매에 있어서도 개인 낙농인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효율적 수행은 협동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된 결사

**이제 낙농인의 역할이 단순한 젖소를 관리하고 우유를 짜서 집유소에 납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시기는 지났고 또 그런 수준으로 낙농산업은 있을지언정 낙농인은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은 명확하다.**

의 자유에서 협동조합의 결사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민들의 최대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요즘 일부지역에서 기존축협과 신설낙협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축협에서도 전문축종별 협동조합의 세분화 발전이 바람직스럽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축협의 경영도 어려운 영세한 조건하에서 같은 지역, 같은 조합원이 분리되어 새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기존 축협도 신설 낙협도 경영이 어려울 것 이란 우려에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간의 협동, 전문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이 상호간 종합성과 전문성을 조화있게 살릴수 있도록 협동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의 당위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경영의 효율성이 전제되면서 낙농협동조합의 설립확대와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운동이면서 경제단체로서 경영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권익대변기구로서 제몫을 다 하려면 인적 결합력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협동조합이 독점 자본과 권력의 부당한 지배, 간섭을 배제하면서 자급, 자립적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진실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이 실현이 보장되는 것이다.

전환기 한국 낙농업, 낙농인의 살길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써 낙협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원인 낙농인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란 점도 주장하고 싶다.